

열린 시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행 26:18).

: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는 ‘죄악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 변화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변해 결심을 한 상태는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서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열린 시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행 26:18)

1. 구원의 단계 – 죄악을 사함 받는 것에서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봅니다.

처음에는 눈을 떠 빛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눈을 뜨는’ 단계로 새로 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듯 눈을 뜨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려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선물로 받은 죄 사함’의 고백이 그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마음의 결심’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종’과 ‘구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종이란 자극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10명 모두 치유의 ‘빛’을 경험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지만,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눅17장).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함과 더불어 죄 사함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러한 경험은 단지 눈이 열렸을 뿐이지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눈이 열려 ‘결심’ 했다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2. 구원의 단계 – 거룩한 자의 기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이요,

두 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얻는 기업으로’ 구원받은 자의 상급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가리켜 챔버스는 은혜의 위대한 두 번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구원 받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거룩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거듭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므로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 ❶ ‘눈이 열려 ‘결심’ 했다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 ❷ 구원 받은 자의 ‘거듭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므로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묵상질문 회심, 구원 그리고 성화 중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묵상 레시피 | 사도행전 9:1-19 + 사도행전 26:18

사울은 열정적인 바리새인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2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아나니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3-14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여 주신’ 사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5-16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7절)

아나니아는 들었고, 보았고,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길 가던 중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3-6절)

사울에게 어떤 일,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17-19절)

하나님은 왜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9:15-16, 26:16절)

사울은 보았고,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짧은 기도

주님, 당신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어떤 베일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얼굴 빛 전부를 저희에게 비춰 주소서.

주님의 깊은 광채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중심을 비추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거룩한 영의 이글거리는 능력만이 모든 내적 완성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피조세계가 열망하는 바입니다.

테이야르 드 샤르댕_눈을 뜨게 하소서(1881-1955, 프랑스 과학자, 예수회 신부) 「사귐의 기도」 363